



희귀식물 시리즈 <17>

구상난풀

• 학명 *Monotropa hypopitys* L.



글쓴이 · 김재황 / 사진 · 김종권

나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햇수로 꼭 10년 동안을 살았다. 집 마당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그림처럼 한라산 봉우리가 한눈에 들어왔다.

한라산은 참으로 그 성품이 온화해 보였다. 그 산세가 아주 너그러워 보였다. 말하자면 남성적이 아니라 여성적인 산인 듯했다.

그렇지만 막상 산을 오르기 시작하

면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게다가 한라산 정상 가까이로 올랐을 때, 힘찬 모습의 구상나무를 만나게 되면, 더욱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된다. 구상나무는 전나무 부류에 속한다. 높은 곳을 향해서 달리는 열매도 그렇거니와 높고 험한 산봉우리 위로 올라와서 사는 삶이 또한 그렇다.

그런데 그 구상나무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가면,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구상난풀이 살고 있다. 이른바 여러해살이 부생식물(腐生植物)이다. 키는 20cm정도이고, 줄기는 더 부룩하게 무더기로 돌아나며 살이 많은데, 연한 황갈색을 나타내고 있다. 비늘 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더욱 이색적이다.

꽃은 5월에서 6월까지 핀다. 그 꽃 또한 연한 황갈색이어서 연약한 느낌이 강하다. 꽃잎은 4개, 수술은 8개이다. 꽃밥은 아픔을 지닌 적갈색이다. 고개를 숙인 그 모습이 너무나 풀이 죽어 있어서 안쓰러움을 갖게 한다. 대체 이 구상난풀은 무슨 이유로 구상나무 숲속에서 살게

되었을까?

구상나무가 작은 숲을 이루고 있는 한라산 산정에는 백록담이 있다. 멀고 먼 옛날에는 그 곳으로 하늘로부터 선녀들이 내려와서 놀았는데, 선녀들은 희고 부드러운 옷을 벗어서 구상나무 가지에 걸어 놓고 목욕을 즐겼다고 한다.

아마도 그 때 그 옷고름 하나쯤이 떨어져서 구상난풀이 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도 구상난풀은 순결성을 지니고 있겠는가 싶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백록담(白鹿潭)은 흰 사슴이 놀던 곳이라 하여 그 이름을 얻었다고 전한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옛날, 한라산 산정에는 한 신선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매년 북날이면 선녀들이 하늘에서 백록담으로 내려와 목욕을 즐기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신선은 선녀들의 옷을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 한라산 북쪽 방선문(訪仙門)으로 내려가서 선녀들의 목욕이 끝나기를 기다리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선은 선녀들이 목욕을 끝내고 하늘로 모두 올라갔을 것이라고 여기고 백록담으로 돌아왔다. 그 때, 신선은 한 선녀가 늦게 목욕을 마치고 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했다. 신선은 정신이 황홀하여 넋을 잃었고, 선녀는 기겁을 하였다. 하늘로 급히 올라간 선녀는, 그 사실을 옥황상제께 일러 바쳤다. 옥황상제는 크게 노했다. 그래서 당장에 그 신선을 한 마리의 흰 사슴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후, 흰 사슴으로 변한 신선은 복날이 되면 백록담으로 와서 슬피 울었다고 한다.

신선이 선녀의 알몸을 보게 된 것이 우연의 일이었건만, 것처럼 무거운 벌을 받게 되었으니 어찌 슬프지 않았으랴. 그 눈물이 방울방울 구상나무 숲에 떨어졌을 것이고, 그 눈물 방울은 생명을 얻어서 구상난풀이 되었을 성싶기도 하다.

구상난풀과 닮은 게 있다. 바로 수정난풀이다. 이 또한 부생식물이다.

활엽수 숲속 그늘진 곳에서 산다.

그 꽃이 하나의 종 모양인데 흰 빛으로 반투명하다. 잎도 비늘 모양이고, 그렇기에 탄소동화작용도 하지 못한다. 형언하기 힘든 가련미(可憐美)를 지녔다.

이제 한라산의 백록담 부근에서 구상나무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구상나무 자체가 현재의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작은 무리를 이루고 있는 구상나무 숲은, 앞으로 더욱 면적이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사람들의 훼손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구상나무 숲이 없어지면 자연히 구상난풀도 살 수 없게 된다. 선녀의 옷고름과 같은, 또는 흰 사슴의 눈물을 생각하게 하는, 구상난풀이 그 생명을 잃지 않도록 구상나무를 살려 내야 한다.

그리고 구상나무가 살 수 있도록 백록담을 맑게 하고, 또 한라산 전체를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다.▲▲